

黃眞伊 時調의 離別 形象化와 對應樣相

金成紋*

〈국문초록〉

황진이의 시조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녀가 남긴 작품 수에 비해서는 비교적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간의 성과의 연장선에서 본 논문을 통하여 황진이 시조 작품에 드러난 이별의 형상화와 이별상황에서의 대응양상에 대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여섯 수의 황진이 시조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별의 상황과 연관을 맺고 있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황진이 시조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작품 속에 투영된 황진이의 이별상황에서의 대응양상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논문의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황진이 시조의 이별의 형상화에 대해서는, 그녀가 남긴 시조가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 작품마다 절묘한 상징과 은유, 그리고 다양한 시적 장치를 통하여 이별의 상황에 느끼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작가적 개성으로 녹여 내어 효과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진이 시조에 드러난 이별상황 대응양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이별의 상황을 자연의 섭리에 의탁하여 이별의 순간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스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자연순응적 대응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니 언지 無信하여~>, <어더 너 일이어~>, <山은 냇 山이로더~>, <靑山은 내 뜻이요~>의 네 작품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시·공간을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는 자연에 대한 도전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이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순응적 대응양상과 도전적 대응양상이 혼재(혼합)되어 있는 혼합적 대응양상이다. <靑山裡 碧溪水 |야~>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이별상황에 대한 대응양상이 서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그녀라는 그녀의 신분이 갖는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 호방하면서도 다

* 남서울대 강사.

감한 그녀의 성정도 많은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완할 점들은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핵심어 : 황진이, 이별, 대응양상, 시조, 상징, 비유

I. 序論

黃眞伊¹⁾의 時調 作品에 대한 研究는 現存하는 作品 수에 비하여 그 논의가 비교적 깊이 있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황진이와 그의 문학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진이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한용운²⁾에서부터 시작하여 황진이의 전기적 일생을 중심으로 한 소설³⁾, 그리고 최근의 연구논문에 이르기까지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초기에 李殷相은 黃眞伊 時調 作品의 藝術的 우수성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⁴⁾ 金台俊·文一平·李秉岐 등이 계속하여 黃眞伊의 作家論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研究의 가치를 認定하였다.⁵⁾ 光復 이후에는 金東旭·金用淑·張德順·趙雲濟 등이 그 人物과 作品에 대하여 잇달아 논의하였고⁶⁾, 崔東鎬·尹榮玉·朴榮完 등⁷⁾은 黃眞伊의 작품에 대한 본격

1) 본명은 眞, 별명은 眞娘, 기명은 明月이다.

2) 韓龍雲, 「天下名妓 黃眞伊」, 『別乾坤』제4권 제1호, 開闢師, 1929.

3) 鄭漢淑, 『황진이』, 정음사, 1955.

鄭飛石, 『옛날 옛적에 한 여자 - 옷을 벗은 황진이』, 남향문화사, 1982.

4) 李殷相, 「黃眞伊의 一生과 藝術」, 『新生』제2권 11호, 新生社, 1929.

5) 金台俊, 「黃眞伊傳」, 『朝鮮名人傳』제2권, 1939.

文一平, 「名妓 黃眞伊와 그 時調」, 『湖岩全集』, 朝光社, 1939.

李秉岐, 「黃眞伊의 藝術」, 『春秋』제2권 4호, 朝鮮春秋社, 1941.

6) 金東旭, 「黃眞伊와 許蘭雪軒」, 『現代文學』제9호, 現代文學社, 1955.

적인 研究를 통하여 學術 論文으로서의 새로운 面貌를 보여 주었다. 이후 李信馥, 金容德 등이 作家論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姜銓燮은⁹⁾ 그간의 黃眞伊 관련 논문들을 한 권의 책자로 엮어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배 연구자들의 뒤를 이어서 黃眞伊의 生涯와 作品에 대한 研究는 꾸준히 이루어져 오늘날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研究들은 黃眞伊가 文學史的 側面에서 차지하는 位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反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이러한 先行研究의 成果들을 인정하며 그 연장선에서 黃眞伊의 時調 作品을 이별을 중심으로 綜合的인 分析을 통하여 作品 속에 內在된 黃眞伊의 離別 形象化와 그 對應樣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離別 形象化와 對應樣相

黃眞伊의 時調 作品은 『靑丘永言』 등의 歌曲集에 실려 있는 여섯 수¹⁰⁾

金用淑, 「黃眞伊의 傳奇的 研究」, 『靑坡文學』 제2호, 淑明女大, 1960.

張德順, 「韓國의 사포 黃眞伊」, 『韓國의 人間像』 제5권, 新丘文化社, 1965.

趙雲濟, 「黃眞伊의 시와 한국시의 전통」, 『시문집』 제2·3집, 友石大學, 1968.

7) 崔東鎬, 「黃眞伊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 『고대어문논집』 18집, 1977.

尹榮玉, 「黃眞伊 시의 Tension」, 『국어국문학』 83호, 1980.

朴榮完, 「黃眞伊 시조연구」, 『관동어문학』 4집, 1985.

8) 李信馥, 「黃眞伊論」,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81.

金容德, 「黃眞伊 時調論」, 『한양대인문논총』 14집, 1982.

9) 姜銓燮, 『黃眞伊研究』, 創學社, 1985.

10) <너 언저 無信하여~>.

<어더 너 일이여~>.

<山은 냇 山이로더~>.

<靑山은 내 뜻이오~>.

<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靑山裡 碧溪水야~>.

가 전부이다. 하지만 作家의 思想과 價値觀이 文學 作品 속에 녹아서 전해진다고 볼 때 이 여섯 수의 作品을 결코 적다고만 할 것은 아니다.

黃眞伊는 女流詩人임에도 불구하고 豪放함과 多情함을 두루 갖춘 타고난 性情으로 인하여 술한 風流 男性들과 交遊 하였다. 그러한 그녀는 妓女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사랑과 이별을 되풀이 하는 범상치 않은 삶을 살다 간 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이러한 方外人으로서의 삶은 그녀의 時調 作品 속에 오롯이 담겨 오월에 전해지고 있다. 이에 黃眞伊의 時調 作品에 드러난 이별의 형상화에 대한 分析과 綜合的인 接近을 통하여 離別 形象化 및 그녀의 이별 상황에서의 對應樣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順應的 對應

너 언지 無信하여 님을 언지 속엿관디
 月沈三更에 온 뜻지 전혀 업니
 秋風에 지는 님소리야 너들 어이 흐리오. 588(瓶歌 540)¹¹⁾

黃眞伊는 초·중장을 통하여 자신은 님을 속인 일이 없건만 새벽이 다가도록 돌아올 생각이 없는 님과의 이별 상황을 중장의 '秋風에 지는 님소리'를 통해 집약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黃眞伊가 님과 이별한 시간적 배경은 늦은 가을, 그것도 달도 떨어지고 없는 한 밤중(月沈三更¹²⁾)이다. 늦가을이라

11) 본고의 가번은 <沈在完, 『校本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에 의한 것이며, 괄호 안 가집 명칭은 대표 표기를 의미함.

12)三更(밤11시 ~ 새벽1시)에는 달의 모양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달을 볼 수 있는 날도 많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黃眞伊가 말한 月沈三更은 離別로 인해 空虛하게 남은 하늘, 곧 자신의 心情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는 시간적·계절적 배경은 사계절 중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는 이별의 象徴的 意味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봄에 싹이 터서 여름내 苦樂을 같이 하던 가지(枝)와 잎(葉)은 타는 듯한 丹楓을 마지막으로 이별을 堪耐해야 한다. 黃眞伊는 바로 이러한 自然의 秩序에 자신의 이별 상황아래 놓인 처지를 依託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秋風'이라는 이별의 원인¹³⁾에 의해서 黃眞伊는 '넙'을 떨쳐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自然의 攝理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잎이 떨어지는 소리까지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넙소리'는 이별 상황의 자연의 소리임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넙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끝내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현 상황에서 넙과의 이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별의 서운함과 슬픔만은 감출 수가 없는 여인의 보편적 정서를 개성적으로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黃眞伊는 이별의 상황을 自然의 理致로 여기며 自然 法則에 順應하며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더 너 일이어 그릴줄를 모로던가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턱야
 보니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나 흐노라. 1965(瓶歌 25)

위의 작품에서 黃眞伊는 이별 후의 悲感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있으
 라 했으면 가지 앓았을 넙을 굳이 자신이 가라고 하여 보내 놓고서는 '보내고

13)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별은 기녀라는 黃眞伊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14) 여기서 '넙소리'는 '입소리'의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입소리'는 곧 '입에서 나는 소리' 즉, '울음 소리'로 그 의미망의 확장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는 情'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한다. 이는 黃眞伊가 당대의 못 여성들과는 달리 愛情狀況에서 主導的이며 能動的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무리 豪放한 性格의 黃眞伊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뒤에 찾아오는 悲感만은 어찌할 수 없음을 또한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별 후의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앞의 작품 <너 언지 無信 何여~>에서처럼 宿命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豫感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있으라고 하면 잠시 잡아 들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자신은 妓女의 신분이기애 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心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님과 함께인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먼저 맞는 매라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듯, 보내고 그리워하는 情까지야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낸 것이다.

山은 넷 山이로디 물은 넷물이 아니로다

晝夜에 흐르거든 넷 물이 이실소나

人傑도 물과 갓도다 가고 아니 오는또다.

1441(瓶歌 541)

위 시조는 黃眞伊, 朴淵瀑布와 함께 松都三絶로 잘 알려진 花潭 徐敬德의 죽음을 哀悼하기 위해 黃眞伊가 지었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黃眞伊는 님과의 이별 상황을 거대한 자연의 循環 構造를 통하여 形象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은 철 마다 그 옷을 갈아입을 뿐, 그 本性은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넷 山'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의 本性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오래도록 고여 있는 물은 결국에 썩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黃眞伊는 이러한 認識 아래에

서 이별 후 떠나가는 님(人傑)도 물과 𨇓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님과의 이별도 결국은 산과 물이 그대로 하나일 수만은 없는 自然의 攝理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논고. 2865(大東 128)

위 작품의 이별 形象化 方式과 그에 대한 對應樣相은 앞선 작품, 〈山은 넷 山이되되~〉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뜻은 비록 산(靑山)에 있지만 이미 님의 정은 흘러가는 물(綠水)과 같으니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靑色과 綠色은 둘다 푸른 빛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둘을 서로 같은 색이라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둘은 한 곳에 자리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다른 性情을 갖고 각기 다른 곳을 향하는 運命인 것이다. 이는 秋風이 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잎과 유사한 象徴의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작품, 〈니 언지 無信하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별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만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저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면서 간다고 한 것이다. 이 울음은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가는 님의 울음인 동시에 슬픔에 겨워 님을 보내는 黃眞伊 자신의 울음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가 말로 가장 인간적이며 감정에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普遍的인 情緒를 가식 없이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는 黃眞伊는 인간적이며, 감정에 충실한 시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작품은 각각 이별의 形象化의 側面에서는 독립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對應樣相의 側面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위 작품들의 경우는 이별의 상황을 自然의 攝理에 依託함으로써, 이별의 순간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스리지 않고 自然에 順應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위 네 작품에서 보이는 화자의 離別 對應樣相을 묶어 自然 順應的 對應樣相이라 부르고자 한다.

2. 自然 挑戰的 對應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쪼리라. 894(靑珍 287)

이 작품은 앞선 네 개의 작품에서 보여준 이별의 對應樣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앞선 네 수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自然의 法則에 이별의 상황을 依託하여 그것을 順應的으로 受容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에서 黃眞伊는 自然의 法則에 거슬러 自然 攝理에 挑戰하는 樣相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나긴 밤, 그것도 동짓달 밤에 님의 부재로 인해 사무치는 외로움의 시간을 黃眞伊는 과감히 끊어낸다¹⁵⁾. 그리고 님이 오실 밤이 되면 이를 다시 펼쳐 놓고자 따뜻한 이불 아래 고이 간직해 두겠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의 裁斷意識은 이 작품을 黃眞伊 時調 중 가장 絶唱 중 하나로 손꼽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다. 여자라 해서 그저 담담하게 이별의 시간을 堪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로움이 쌓여

15) 김일렬, 「시조에 나타난 시간의식」, 『백영정병옥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487쪽.

그는 이 논문을 통하여 黃眞伊가 뚜렷한 시간의 재단의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무치도록 넘어 그리운 상황에서 黃眞伊는 길고도 외로운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것이다. 즉 黃眞伊는 이별의 시간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自然의 法則(時·空間)에 積極的으로 挑戰하여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意志를 表明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남의 결핍으로 인한 否定的 意味의 기다림은 希望을 內包한, 肯定的 意味의 기다림으로 轉換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黃眞伊의 발상은 自然을 挑戰의 대상이 아닌 合一이나 一體의 대상으로 認識하던 당시 士大夫들의 價値觀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과격적이고도 기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混合的 對應

靑山裡 碧溪水야 수이 감을 즈랑마라
一到 滄海하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 간들 잊더리. 2858(瓶歌 539)

이 작품에서 黃眞伊는 산을 내려 흘러가는 '碧溪水'는 한번 바다에 이르면 다시 자신이 있던 산속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잠시 머물러 함께 있지는 유혹의 말을 던지시 던지고 있다. 그것도 자신이 머물러 있는 산에서 말이다. 黃眞伊의 妓名이 '明月'이라는 점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明月이 滿空山하니'의 표현은 곧 자신이 여기 있으니 자신과 함께 쉬었다 가라는 표현의 比喻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黃眞伊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랑에 受動的인 모습만을 보이는 여느 여인의 것이 아니다. 妓女라는 신분적 측면과 그녀의 타고난 性情에 기인하여 積極的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작품의 '碧溪水'가 왕실의 종친인 '碧溪守'를 두고 창작하였다¹⁶⁾는

16) 『銀溪筆談』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이별의 對應樣相은 앞선 다섯 수의 작품과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네 작품의 경우에는 이별을 自然의 法則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 順應的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다면, 〈冬至스달 기나긴 밤을~〉은 自然 法則을 거스르며 挑戰하는 樣相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兩者가 混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自然의 法則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挑戰的 意志를 보여주는 것이다. 黃眞伊는 흐르는 물이 산을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自然의 攝理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벽계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한다. 이는 곧 앞선 작품 〈冬至스달 기나긴 밤을~〉에서 시·공간에 대한 재단의식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었는데 반해 그것이 소극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 〈靑山裡 碧溪水 | 야~〉에서의 이별에 대한 自然 對應樣相은 順應과 挑戰(拒否)이 混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와 같이 이별 상황에서 앞서 규정한 자연의 順應的 對應樣相과 挑戰的 對應樣相의 중간적, 혼합적 경향을 보이는 대응양상을 混合的 對應양상이라 하고자 한다.

Ⅲ. 結論

이상에서 黃眞伊의 時調 作品 여섯 수에 드러나는 離別의 形象化와 離別 狀況의 對應樣相에 대해 세 가지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그녀가 남긴 時調 作品은 많다고 할 수 없는 여섯 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 작품마다 絶妙한 象徴과 隱喩, 그리고 다양한 시적 장치를 통해 이별 상황에 느끼게 되는 인간의 普遍의 情緒를 특유의 作家의 個性으로 녹여내어 효과적으로 形象化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離別 狀況의 自然 對應樣相은 <니

언지 無信하여~), 〈어더 니 일어~〉, 〈山은 넷 山이로디~〉, 〈靑山은 내
뜻이요~〉의 네 작품의 경우에는 自然의 法則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경
향의 順應의 對應樣相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에서는 自然의 攝理를 거슬러 時·空間
을 자신의 뜻대로 裁斷하는 自然에 대한 挑戰의 樣相이 濃厚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靑山裡 碧溪水 | 야~〉의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 側面의 樣相이
혼재되어 있어 둘 의 중간적인 경향을 보이는 混合의 樣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렇듯 離別의 狀況에 대한 對應樣相이 서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妓女라는 그녀의 신분과 함께 豪放하면서도 多感한 타고난 性情에 기인하
는 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일말의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作品에 대해서 보다 精緻
한 分析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黃眞伊의 漢詩 作品에까지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後續 研究를 통하여
앞으로 補完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銓燮, 『黃眞伊 研究』, 倉學社, 1985.
 金東旭, 「黃眞伊와 許蘭雪軒」, 『現代文學』 제9호, 現代文學社, 1955.
 김연옥, 「黃眞伊 시조의 멋과 풍류」, 『새국어교육』 6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金容德, 「黃眞伊 時調論」, 『한양대인문논총』 14집, 1982.
 金用淑, 「黃眞伊의 傳奇的 研究」, 『靑坡文學』 제2호, 淑明女大, 1960.
 金台俊, 「黃眞伊傳」, 『朝鮮名人傳』 제2권, 1939.
 文一平, 「名妓 黃眞伊와 그 時調」, 『湖岩全集』, 朝光社, 1939.
 朴榮完, 「黃眞伊 시조연구」, 『관동어문학』 4집, 관동대 국어교육과, 1985.
 『백영정명옥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2000.
- 徐宗男, 「황진이 시가에 나타난 의식구조」, 『시조학논총』제13집, 한국시조학회, 1993.
- 안지영, 「기녀시조의 시조사적 의미」, 『시조학논총』제17집, 한국시조학회, 2001.
- 尹榮玉, 「黃眞伊 시의 Tension」, 『국어국문학』83호, 1980.
- 李秉崎, 「黃眞伊의 藝術」, 『春秋』제2권 4호, 朝鮮春秋社, 1941.
- 李殷相, 「黃眞伊의 一生과 藝術」, 『新生』제2권 11호, 新生社, 1929.
- 이영지, 「黃眞伊 시조」, 『사회교육연구논총』2집, 명지대 사회교육연구소, 1996.
- 李和炯, 「黃眞伊 時調에 나타나는 意志의 문제」, 『어문연구』제93호, 1997.
- _____, 「시조에 나타난 기녀들의 존재의식 탐구」, 『한국언어문학』제46집, 2001.
- 張德順, 「韓國의 사포 黃眞伊」, 『韓國의 人間像』제5권, 新丘文化社, 1965.
- 鄭英文, 「黃眞伊의 詩世界」, 『동방학』5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9.
- 趙雲濟, 「黃眞伊의 시와 한국시의 전통」, 『시문집』제2·3집, 友石大學, 1968.
- 조창환, 「黃眞伊·李梅窓의 時調와 漢詩」, 『인문논총』6집,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 崔東鎬, 「黃眞伊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 『고대어문논집』18집, 1977.
- 황충기, 『여향인과 기녀의 시조』, 국학자료원, 1999.

<Abstract>

**Figuration of farewell and aspect of confrontation
expressed in the poem of Hwang Jin I**

Kim, Seong-moon

The research on the poem work of Hwang Jin I may have been discussed relatively profoundly compared to the number of works left by her. On the prolongation of such result that has been made thus far, the author tried to investigate aspect of confrontation of figuration and situation of farewell revealed in the poem work of Hwang Jin I through this dissertation.

The 6 poems of Hwang Jin I are works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situation of farewell. Thus, the author began to discuss dissertation, thinking that the difference in aspect of confrontation in the farewell situation of Hwang Jin I projected in the work can be confirmed by analyzing the poem work of Hwang Jin I.

First, with respect to the figuration of farewell in the poem of Hwang Jin I, it cannot be said that she left many poems. However,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universal human emotion felt in the situation of farewell was effectively converted to figuration by personality of the author through the delicate symbol and simile felt in each work and diverse poetic devices.

Then, the aspect of confrontation of farewell situation revealed in the poem of Hwang Jin I was investigated in 3 large divided aspects. First, it is the nature-compliant aspect of confrontation that does not artificially reject or disobey but accepts the moment of farewell by relying on the providence of nature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of farewell. Four works pertain to this category, namely, <니 언지 無信하여~>, <어더 니 일이어~>, <山은 냇 山이로디> and <靑山은 내 뜻이요~>. Next, it may be challenge to the nature, that is, to cut time and space at own intention against the providence of nature. The work,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pertains to this category. Finally, it is mixed aspect of confrontation in which the above-mentioned compliant aspect of

confrontation is mixed with challenging aspect of confrontation. The work, 〈靑山裡 碧溪水 | 야~〉 may pertain to this category.

As explained above, the aspect of confrontation revealed differently in the situation of farewell may be due to the peculiarity of her status as official kisaeng. Furthermore, her magnanimous and affectionate character may be also quite influential on this matter.

The matters to be supplemented to make the above discussion successful need to be studied in the subsequent research.

Key word : Hwang Jin I, farewell, aspect of confrontation, sijo, symbol, figurative expression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